

# 광주여성재단 '대표 vs 사무총장' 내분

광주시 대표 출원기관으로 여성 정책의 콘트론타워격인 광주여성재단이 서열 1, 2위인 신입 대표와 사무총장 간 내분으로 때 아닌 흥역을 치르고 있다.

허위 출장이 발단이 된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시의회에서 존폐론이 거론될 정도로 사안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여성재단에 따르면 여성재단 강도 사무총장은 지난 7월 중순 서울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관외 출장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행사 당일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결국 불참했다.

강 총장은 그러나 나흘 뒤 주간회의 석상에서 워크숍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엄미봉 신입 대표 지시를 받고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사흘 뒤 여비 13만3900원을

## 허위 출장·인사위 안전 누락으로 갈등 폭발 내부 알력다툼 비판...의회 "존폐 검토" 거론

지급받았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엄 대표는 강 총장이 당시 워크숍에 불참했음에도 허위 출장보고서를 낸 사실을 알게 됐다. 강 총장은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재단개혁을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엄 대표는 경영지원실장 등에게 인사위원회 회부를 지시했고, 강 총장은 경위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장 사직처리는 운영현 시정에 게까지 보고됐다. 일종의 통의도 구했지만 정작 인사위 안전에서는 누락됐고, 이에 엄 대표는 경영실장 등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고 책

입자 격인 경영실장을 정책연구실장으로 보내는 등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급기야 재단 내부문제를 인지한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조사에 착수하면서 징계절차 등은 울스푼 상태다. 이 과정에서 재단 측이 외부 인사들에게 소액의 명절 선물을 돌린 사실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되는 등 후유증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재단 내부에서는 지난 6월 취임한 신입 대표 진영과 사무총장, 경영실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안방세력 간 알력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표 측은 "재단의 곁은 부위를

도려내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반면 강 총장 측은 "재 대표가 조직을 정약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추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여성계와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끼리 진영싸움을 하고 불쌍사나운 폭로전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한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여성재단 현안보고회를 갖고 "유급"을 표명했다. 특히 경영실장이 지시사항을 멋대로 처리한 것(징계안전 누락) 등은 문제가 있다며 "필요할 경우 여성재단 존폐를 논의하거나 출연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까지 제기돼 재단 내분을 둘러싼 후유증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은홍 기자

## '주먹질에 운행방해' 심야 택시기사 잇단 수난

광주에서 술에 취한 승객들을 상대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잇따라 수난을 당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택시기사의 어깨를 때리고 밀친 혐의(폭행)로 박모(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4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모 교회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기사 김모(58)씨의 어깨를 수회 때린 뒤 승으로 기습을 밀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박씨는 운행 중 폭력을 행사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다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경찰서는 이날 택시 요금을 주지 않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또 다른 박모(57)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아파트 정문 옆 사회복자관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운 뒤 요금을 내지 않고 25분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박씨는 자신의 등산기계를 택시 본네트에 올려놓고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택시기사를 때린 이모(37)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20분께 광산구 한 포장마차 앞 길에서 40대 운전기사의 목살을 잡아 흔든 뒤 택시 운전석을 발로 찬 혐의다.

이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이씨는 골택시 취소를 항의하는 운전기사에게 "부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성관계 유도 뒤 고소 협박 돈 뜯어낸 10대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18)군을 구속하고 A군의 친구 B(19·여)씨 등 6명과 B씨의 어머니(48)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일 사이 광주 북구 한 모텔에서 학교 친구 C(18)군에게 접근 B씨와 성관계를 하게 한 뒤 고소할 것처럼 협박해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학업을 그만둔 A군은 같은 학교 친구였던 C군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하고 다른 친구들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인 동성 친구 4명, B씨와 짜고 C군을 모텔로 불러 술자리를 가졌으며, 숙청 왕게임(왕이 된 사람이 나머지 번호를 뽑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게임)을 통해 성관계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군에게 B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 손님이 놓고간 노트북 횡령 여관 사장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손님이 놓고간 노트북을 습득한 뒤 사용한 혐의(횡령)로 숙박업소 사장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한 지역 여관 객실에 손님 박모(33)씨가 두고간 노트북(5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달 12일 광주 한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맡긴 뒤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갖고 싶었던 노트북을 수개월간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택 기자

## 용인 물류센터 공사장 옹벽 붕괴 1명 사망

경기 용인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쏟아진 토사에 묻힌 근로자 1명이 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오전 10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다량의 토사가 쏟아져 근로자 4명과 굴착기 등이 매몰됐다.

매몰된 근로자 가운데 이모(47)씨는 사고 후 5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14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매몰자 배모(52)씨 등 3명은 앞서 자력으로 탈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 한빛원전, 방폐물 연내

### 1400드럼 해상 운송

영광 한빛원전 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400드럼(1드럼·200l 기준)이 연말까지 경북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해상 운송된다.

연말까지 방사성폐기물 운송이 완료되면 한빛원전 내 방폐물 저장률은 77%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전력 본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700드럼이 경주 방폐장으로 처분·인도된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700드럼은 11월28일께부터 신적을 시작해 12월 초께 해상운반을 통해 인도될 예정이다.

28일까지 처분·인도 될 방폐물은 한빛원전 방폐물 저장고에서 운반차량에 실려 물양장에서 방폐물 전용운반선 '청정누리호'에 선적돼 오는 27일 경주 방폐장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경주 방폐장과 인접한 월성원전 물양장까지 운항 거리는 총 843km로, 영해선 안쪽 항로를 따라 약 48시간이 소요된다.

청정누리호는 충돌방지 레이더, 이중선체, 이중엔진, 3중 차폐구조, 방사선 안전설비, 각종 소화설비, 위성통신, 기상정보 장치, 36시간 비상전원 공급장치 등 다중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스모스보며 가을 즐기는 시민들.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양재시민의숲에 시민들이 코스모스를 보며 가을을 즐기고 있다.

## 광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엉망'...부적절 행위 수두룩

### 위원회 컨설팅 감사 결과

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남발하고 과도한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또는 통합토록 한 행정안전부 정비지침도 광주시는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3일 2017년도 각종 위원회 컨설팅 감사 결과를 통해 부적절하게 운영되거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원회 운영사례 6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광주시 A실은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8차례나 서면심의를 남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B과는 위원회 위원을 7~10명 이내로 그 위원 중 40%는 여성위원을 위촉토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위원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성위원은 단 1명도 위촉하지 않았다.

C과는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임 절차 없이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해 조건부결하는가 하면, 심의의

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법정 주차대수 확보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D실은 행정안전부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토록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당초 계획에는 3개를 폐지하고 11개를 통합해, 5개를 비상설화하겠다고 정비계획서를 수립했으나 실제로는 폐지 2개, 통합 0, 비상설화 1개에 그쳤다.

또 관련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과는 8명, F과는 5명이 중복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우 기자

#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남편은요...  
안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이제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늦치고 지내, 그래서 있고 지내 시가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랄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지체장애아, 자발적으로 응진 민해군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암 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만약에는 검진 1년이 권장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